

# 현대차 ‘통큰 주주친화 정책’... 1조 규모 자사주 소각

총 854만 주의 이익소각 추진  
14년 만에 대규모 자사주 소각  
“약 3%의 EPS 증가 효과 기대”



현대차그룹 사옥.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자사주 매각을 통해 주주친화 정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주주가치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보통주 661만 주, 우선주 193만 주 등 모두 854만 주의 이익소각을 추진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은 배당과 함께 대표적 주주친화 정책으로 꼽힌다. 현대차가 대규모 자사주 소각에 나선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4년 만이다.

현대차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은 지난 2014년부터 본격화했다. 같은 해 현대차는 5000여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투명한 경영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2016년 기업 지배구조 현장 제정, 2017년 중장기 신 배당정책 발표(잉여현금흐름의 30~50% 배당)에 이르기까지 매년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해 왔다.

올해 역시 주주 권익 확대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주들로부터 주주권익 보호담당 사외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받

아 선임하는 새로운 주주 친화 제도를 도입하고, 투명경영위원회를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기존 4개사에서 현대제철, 현대건설로 확대 설치하기로 하는 등 주주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다.

이와관련해 증권업계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의) 이번 주식 소각을 통해 약 3%의 주당 순이익(EPS)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

며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주주환원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방법론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았다는 점에서 주식 소각 경정의 배경과 내용, 향후 전망 등 현대차그룹 전반적인 주주 환원 정책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자기 주식 소각으로 주식수가 감소하면서 주당 가치가 올라가고, 향후 배당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현대차의 1조원 규모 자사주 소각을 두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엘리엇은 “현대차의 주주로서 경영진이 발표한 자사주 일부 소각과 추가 주식 매입 후 소각 계획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긍정적인 발전이기는 하지만 주주들이 경영진에 기대하는 바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의 입장 자료를 냈다.

이에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이후 지속해온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대차는 건실한 실적을 내는 데 집중해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주주환원 확대 방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CJ대한통운, ‘북방물류’ 가속화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 연다

‘유라시아 브릿지 서비스’ 출시

CJ대한통운은 유럽과 아시아 간 중국횡단철도(TCR)와 트럭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국제복합운송 서비스 ‘유라시아 브릿지 서비스’(EABS)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중국에서 화물을 컨테이너에 넣고 중국횡단철도를 이용해 유럽지역 기차역까지 수송한 뒤 다시 트럭으로 고객사 물류센터나 공장까지 바로 운송해주는 서비스다. 유럽에서 중국으로 가는 화물은 역순으로 운영된다.

CJ대한통운은 철도와 트럭을 이용해 아시아와 유럽 간 ‘문앞에서 문앞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중국횡단철도를 이용한 유럽-아시아 간 화물운송은 비용이 항공운송의



5분의 1, 소요시간은 해상운송의 3분의 1에 불과해 경쟁력을 갖고 있다.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은 “앞으로 아시아발 유럽항 운송라인을 52개로, 유럽발 아시아항 운송라인을 74개까지 늘려 베를린, 암스테르담, 로마 등 유럽 30개 주요 도시와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 24개 주요 도시로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남북정상회담 그 이후

## 남북 관계 훈풍에 파주 땅값 ‘들썩’

철책선 인근 땅 평당 30만원 상승  
파주지역 부동산 매수문의 ‘붐물’  
“정치 변수 있어 장기적 관망해야”



경기도 파주시 운정역 인근 아파트 단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경기도 파주일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정부는 경기도 파주 장단면 일대에 남북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파주일대가 파주~개성~해주를 잇는 통일경제특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일 파주시 운정역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남북 교류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매물을 거둬들이는 토지가 많아 물건이 실종됐다”며 “철책선에서 가까운 쪽은 지난 주만 해도 3.3㎡당 15만~20만원이거나 10만원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50만원까지 올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파주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현재 매수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경기도 파주에 ‘제2 개성공단’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파주 땅값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오는 7월 입주할 앞둔 ‘운정 센트럴 푸르지오’ 99㎡의 경우 분양가가 3억5500만원이었는데 현재 6000만~8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며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105㎡가 3억2000만원인데 현재 3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호재 뿐만 아니라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인 GTX가 개발호재로 작용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파주 운정과 일산, 강남 삼성, 동탄을 잇는 GTX가 개통되면 서울 도심 접근성이 높아진다.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10분대, 삼성역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파주시 야당역 인근 ‘한빛마을 5단지 캐슬엔칸타빌’의 매매가는 79㎡가 3억2000만~3억3000만원, 99㎡는 3억8000만~4억원선이다. 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 전용 84㎡ 매물이 3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 3월 들어 3억9000만원으로 뛰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달 입주하는 ‘한빛마을 4단지’ 아파트는 99㎡ 분양가가 3억7000만원이다”며 “현재 4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있다”고 말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에 있는 야당역 주변 아파트 가격은 완만한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야당동의 ㎡당 시세는 지난해 3월 302만원에서 올해 3월 317만원으로 상승했다. 이달에는 324만원을 기록했다.

파주시 운정역 외곽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A씨(68)는 “내가 보유한 공장

의 땅값은 현재 3.3㎡당 200만원이다.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가격 상승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파주시 금촌역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가격은 전용면적 85㎡의 경우 2억2000만원, 72㎡가 1억8000만원, 62㎡는 1억6000만원이다”며 “파주 지역은 매물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 호재로 아파트와 토지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며 “토지는 범위가 넓어 일률적인 시세를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금촌역에서 약 7분 거리의 땅값이 3.3㎡당 70만원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산읍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경우 투자에 있어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중개업자에 따르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관망해야 한다. 정치적 변수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정연우 기자 yw1964@

## “냉면 동났어요” 편의점·마트 판매 ↑

GS25·GS슈퍼마켓 사흘간  
냉면류 판매 최대 2배 늘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옥류관 평양냉면’이 이슈가 되면서 편의점과 마트에서 냉면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도 ‘남북정상회담’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GS25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당일을 포함해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농심 동지 물냉면’과 ‘동지 비빔냉면’ 매출이 전주 대비 14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GS슈퍼마켓에서도 ‘동원면발의 신 평양물냉면’ 매출이 전주와 비교해 157.1% 늘었다.

GS리테일 측은 GS25와 GS슈퍼마켓에서 전주보다 냉면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풀무원도 정상회담 이후 ‘생가득 평양물냉면’ 매출이 2배 넘게 늘었다.

정상회담 당일 포함 사흘간(4월 27~29일) 일평균 매출이 직전 평일(4월 23~26일) 일평균 매출보다 212% 증가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당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환영 만찬에 평양냉면이올라 화제가 되면서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냉면을 구매한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 올라온 북한 옥류관 평양냉면. /연합뉴스

우래옥, 을밀대, 필동면옥 등 서울의 유명 평양냉면집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도 평양냉면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미국 방송사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만찬 메뉴로 직접 제면기까지 공수해 평양냉면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평양냉면은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반죽해 냉면틀에 눌러서 국수로 뽑아 찬 육수를 부어 먹는 음식으로 대체적으로 시원한 여름에 즐겨먹는다. 북한에서는 추운 겨울에 동치미 국물에 메밀면을 말아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SPC그룹은 회담 당일 고양시 킨텍스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에게 무료 제공한 ‘라이언 미니설거’에 대한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떡 프랜차이즈 ‘빫스’가 카카오프렌즈 인기 캐릭터인 라이언 얼굴 모양으로 만든 제품이다. SPC그룹은 다음 달 8일부터 온라인 행사를 통해 300명에게 라이언 설거 제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